

【첨부1: 입학식사(총장)】

2023년 신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여러분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서며 최선을 다한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고 생활하게 될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조하는 학문의 전당입니다. 서울대학교는 70년이 넘는 긴 역사 속에서 항상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가치를 배출해낸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두뇌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입학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얻게 된 가슴 벅찬 성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새로운 삶의 시기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실현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사회적인 선입견이나 편견, 모든 종류의 타율과 관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의 목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이며, 삶의 목표는 여러분의 내면에서 솟아나올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학생활이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자유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찾아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의 시기에 진입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정한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더 나은 직업적 전망을 얻기 위해 스펙을 쌓는 것이 배움의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물론 그러한 일들도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나 좋은 학점의 획득과는 다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에서의 배움은 무엇보다도 ‘참된 지성인’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지성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과 사회, 자연의 질서와 원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사람, 모든 사물과 현상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여러 각도에서 둘러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참된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공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안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과 공학 등 여러 학문 분야를 포괄하여 ‘학제를 뛰어넘는 배움’을 통해 통합적 사고능력과 창조적 융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교양 수업과 부전공, 복수전공,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설계할 수도 있는 전공 등 제도적 장치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과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참된 지성인’ 으로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대학은 큰 배움의 터전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는 대학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이뤄지는 여러분의 개인적 성장은 우리 사회 발전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최근의 인공지능 열풍이 보여주듯, 따라가기 힘들 만큼 빠른 기술의 발달과 함께 현대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미래의 불확실성 역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가 되었을 때 인류는 어떤 기술적 가능성을 손에 쥐고 있을까요? 인간은 여전히 현재의 전통적 가치를 중심으로, 현재와 같은 삶의 형태를 유지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해 예단할 수 없는 변화의 시기일수록,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사회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삶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의 배움을 통해 총체적 지식과 사고능력을 가진 ‘참된 지성인’ 으로 성장할 때, 여러분들이 ‘참된 지성인’ 으로서 삶과 사회에 대해 자신 있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혼란과 불안을 딛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장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인식하고 정진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 발전이 결코 여러분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사실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입학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성취의 기쁨 뒤에 부모님과 가족들이, 여러분이 몸담았던 초중고등학교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이 계시듯,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루게 될 발전의 뒤에는 여러분들에게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교수님들과 서울대학교가, 이 뛰어난 학문의 전당과 생산적인 학문공동체를 가능하게 해준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사회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때 이 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며, 그 안에서 이뤄질 여러분의 개인적 성장도 보다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참된 지성인’ 이 되십시오.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개인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세계로 시선을 넓히십시오. 자유롭게 여러분의 날개를 활짝 펼치십시오. 자유로운 학문의 공동체 서울대학교는 여러분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2023년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즐거움과 보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일

서울대학교 총장 유 흥 립

【첨부2: 축사(공과대학 이정동 교수)】

새로운 길에 들어선 2023년 입학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37년 전 저도 공과대학의 새내기 신입생으로서 오늘의 여러분처럼 입학식에 왔었습니다. 앓을 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기 서서 보니 신입생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커다란 대리석 한 덩어리들이 보입니다. 귀퉁이부터 한 조각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떼어내고 갈아서 여러분만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미래를 조각해낼 수 있는 청년의 힘과 시간을 가진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제가 입학했던 그날보다 오늘이 더 긴장됩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축사를 요청받고 나서부터 당부하고 싶은 온갖 생각들이 마구 떠올랐고, 노트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항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은 논문 쓰는거나 혹은 입학식을 망칠 작정이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결국 할 말을 줄이고 또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 마디만은 정말 이야기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교과서를 내려놓읍시다’

고된 입시를 거치면서 교과서를 열심히 익히고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교과서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교과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담고 있지만, 미래에 무엇이 알려질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적힌 내용은 틀릴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 있으며,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가 앞선 이들의 발자국이 찍힌 마지막 경계는 보여줄 수 있을지언정 그 경계 밖의 하얀 눈밭에 어떤 새로운 발자국이 찍힐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교수님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믿고, 받아 적고, 암기해야만 하는 진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논박하고, 전복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2천 년 전 성현의 말씀이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주장이든, 굵은 글씨로 교과서에 띄어나 실려있는 증거이든 다 일시적이고 조건적으로만 유효한 하나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공부의 달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교과서의 이야기도 진리일 수 없다는 뼈뚫한 태도로 질문하고, 주장하고, 논쟁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기술혁신의 원리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는 하나같이 기존의 교과서 논리를 거부한, 비판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의 산물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철학의 사조도, 듣도 보도 못한 예술의 장르도, 혁신적인 과학적 발견도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그 결과 교과서는 끊임없이 새롭게 쓰였고, 과학은 비로소 생명

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교과서를 익히는 사람에서, 새로운 교과서를 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충실히 실행하는 사람에서, 자신만의 개념을 제시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낸 문제를 잘 푸는 사람, 남이 시킨 일을 잘 하는 사람, 남이 만든 세계관에 안주하는 사람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욕먹을지언정 자신만의 세계관으로 독창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교과서와 학점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를 깨부수겠다는 창조적 파괴의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만의 길을 내어가기 바랍니다.

교과서는 책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관행, 관습, 상식, 전통 등 그 무엇이든 ‘이것이 정답이다, 늘 이렇게 해왔으니 의문을 달지 말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고, 옳다’ 고 말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모두 부수어야 할 교과서들입니다. 정답이 있는 교과서를 성실히 공부하겠다는 태도는 제발 버리십시오. 다른 이의 발자국을 막연히 추종하면서 빛나는 20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성인이 된 시각에서 이 세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기 생각만이 유일한 정답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무조건 틀렸다고 귀를 틀어막는 독선의 목소리가 온 곳에서 쟁쟁거리지 않습니까? 자신만의 철학과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타인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진실의 일부를 담은 또 다른 주장일 수 있다는 겸양과 존경, 배려와 공감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한 문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서울대의 문을 들어섰던 청년들은 한국의 과학과 기술, 산업을 일으켰고,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으로 모든 이의 목이 타 들어갈 때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고 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문의 지향을 더 높고 넓게 해야 합니다. 5천만 조국의 미래가 아니라 80억 호모사피엔스와 지구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철학적 눈높이에 서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습니다. 공감의 사라진 자리에 양극화와 분열의 간극으로 해체되어가는 인간 공동체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다 할 정답도 교과서도 없는 지구적 과제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무겁고, 큰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대의 문을 들어선 여러분에게 거는 우리의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나아가 이 세계에 풀지 못할 난제가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그 누군가가 반드시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그 분투의 과정에서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노력이 함께 한다면 우리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문장은 앞으로 새롭게 읽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인류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